

한반도 상황에서의 기독교 정의로운 평화 이론의 모색*

글렌 스타센, 토바이어스 원라이트, 함석현의 정의와 평화의 이해를 중심으로

김종화 (예능교회, 부목사)

- I. 들어가는 말
- II. 정의로운 평화 이론의 비교 연구
 - 1.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
 - 2. 원라이트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
 - 3. 함석현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
 - 4. 세 학자의 비교 연구
- III. 한반도 상황에서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의 모색: 5개의 가치를 중심으로
 - 1. 토착적 가치
 - 2. 풀뿌리적 가치
 - 3. 생태적 가치
 - 4. 세계시민주의적 가치
 - 5. 회복적 가치
- IV. 나가는 말: 한국적(혹은 전지구적) 정의로운 평화를 향하여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7.07>

* 이 논문은 필자의 풀러신학교 박사학위 졸업논문 및 기독교윤리학회 2023년 9월 월례회에서 발표한 “동아시아에서의 기독교 정의로운 평화 이론 모색 - 글렌 스타센, 토바이어스 원라이트, 함석현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의 비교 연구”라는 글을 간추리고 보완하여 작성한 글이다. 특히 본고는 기존의 동아시아적 맥락을 한반도 상황으로 보다 수정함을 통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로운 평화의 이론과 실천의 고찰을 시도한다.

• ABSTRACT •

Exploring a Christian Just Peace Theory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Understandings of Justice and Peace in Glen Stassen, Tobias Winright, and Ham Seok-heon

Pastor. Kim, Jong Hwa(Yehneung Church)

Glen Stassen and other Christian ethicists proposed the just peacemaking initiative about 30 years ago, but the initiative has failed to fully account for non-Western societies where Christianity is not a dominant religion, thus inevitably relying on different religious, cultural, and philosophical traditions. However, given that every just peacemaking is historical and contextual as well as theoretical (and theological), the paper explores a reconstructed model of just peacemaking,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just peace theories of Stassen, Winright, and Ham, this paper offers the five key values—*indigenous, grassroots, ecological, cosmopolitan, and restorative*. This reconstructed just peacemaking intends to demand a holistic approach in which cosmopolitan grassroots agents awaken their identities and subjectivities to restore their communities from broken relationships in harmony and symbiosis with others.

Key words: Just Peace, Glen Stassen, Tobias Winright, Seok-heon Ham, the Korean Peninsula

I. 들어가는 말

기독교 윤리학 안에서 전쟁과 평화의 주제에 관련하여 정당전쟁론과 평화주의라는 두 가지 윤리적 패러다임이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당전쟁론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국민 국가(nation-state)의 표지로만 이용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데, 진정으로 ‘정당한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¹⁾는 것이다. 반면에, 평화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자들의 비판도 맹렬한데, 나이젤 비거(Nigel Biggar)는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희망적인 사고의 바이러스(virus of wishful thinking)에 감염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증오에 의한 동기로 일어나는 폭력(power)과 정당한 원인, 올바른 의도, 비례성과 같은 정당전쟁론의 다양한 원칙에 의해 통제되는 힘(power)을 구분하지 못한다”²⁾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글렌 스타센과 몇몇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정당전쟁론과 평화주의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동시에 촉진시키는 제3의 윤리로서 정의로운 평화만들기(just peacemaking)³⁾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의로운 평화는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 및 남북한의 화해의 문체에 있어서 결정적인 패러다임으로 제안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상황에서 정의로운 평화는—정당전쟁론과 평화주의가 이분법적으로 구

1) Mark J. Allman and Tobias L. Winright, *After the Smoke Clears: The Just War Tradition & Post War Justice* (New York: Orbis Books, 2010), 49.

2) Nigel Biggar, *In Defence of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59.

3) 스타센은 평화주의자들이란 용어가 ‘*pacem-facere*’, 즉, 평화가 아닌 ‘평화-만들기’를 어원으로 하다는 요더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정의로운 평화’가 아닌 ‘정의로운 평화만들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의로운 평화만들기(just peacemaking)이라는 용어는 현대의 윤리학 학계에서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 평화구축(peacebuilding)이라는 용어와 많은 경우에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기에 본고는 이 단어들의 사용에 있어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

분되어졌던 것처럼— 정의와 평화 담론의 간격과 틈⁴⁾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은 대부분의 연구, 적용, 개념 등이 서구적 맥락 안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역사적 전통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의로운 평화의 접근들은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의 정당전쟁론이든, 콘스탄틴 이전의 혹은 재세례파, 메노나이트, 웨이커의 평화주의 전통이든 대체로 서구적 배경을 취한다. 이는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아니어서 필연적으로 다른 종교적, 문화적, 철학적 전통에 기인하는 한반도와 같은 비서구적 사회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정의로운 평화만들기는 이론적(신학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이고 상황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한반도의 정의로운 평화는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문화적, 철학적 배경을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상황에서의 정의로운 평화의 모색과 실천이 서구적 맥락과 반드시 대립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는 서구적 맥락의 전통적 이해를 바탕으로 확립된 중요한 함의들을 한반도의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확장 및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글렌 스타센(Glen Stassen), 토바이어스 윈라이트(Tobias Winright), 그리고 함석헌의 정의와 평화에 관한 다양한 사상을 고찰하는 비교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 학자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정의와 평화의 사상들을 비평하고 보완하면서, 특히 한반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정의로운 평화의 중요한 함의들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⁵⁾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4) 예를 들면,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강조하는 그룹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평화를 강조하는 그룹은 남북 화해와 대화의 담론을 중점적으로 내세운다.

5) 스타센은 정의로운 평화만들기 이니셔티브를 미국 기독교윤리학회(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에 제안한 인물이며 이는 많은 윤리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윈라이트는 카톨릭 윤리학자로서 정당전쟁론 안에서 평화의 가치를 주목하는 학자들 중 한 사람으로, 그는 특히 스탠리 하우어와스로부터 수학하면서 평화주의 전통에 대해서도

세 학자를 대략적으로 동일한 범주 즉, 역사적 배경과 전통, 정의와 평화의 이해,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실천 방법, 힘과 권력의 이해, 도덕적 주제 및 교회의 역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이 비교 연구의 결과, 본고는 한반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기독교적 정의로운 평화의 핵심적인 5가지의 가치(values)로 토착적, 폴뿌리적, 생태적, 세계시민주의적, 회복적 관점을 제안하면서 정의로운 평화의 이론과 실천을 통전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II. 정의로운 평화 이론의 비교 연구

1.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

데이비드 거쉬(David Gushee)는 스타센을 “20세기의 선구적인 침례교 평화 신학자이면서 행동가”⁶⁾로 묘사한다. 실제로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만들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산상수훈을 재발견하려는 그의 신학적 윤리로 귀결된다. 즉, 스타센은 “오늘날의 기독교 윤리학의 문제가 예수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기독교의 도덕적 실천과 신념과 증언의 기형(malformation)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⁷⁾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쉬가 지적한 것처럼⁸⁾, 스타센의 배경에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함석헌은 한국의 대표적 사상가로서 평화 사상 및 인권 시민운동을 이끄는 상징적 인물이다. 시대와 배경이 각기 다른 이 세 학자들을 비교하는 이유는 이들이 기독교 전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 정의와 평화의 사상(스타센: 침례교 평화주의, 윈라이트: 카톨릭 정당전쟁론, 함석헌: 노장사상 및 케이케)을 유산으로 하여 현대적인 의미로 정의로운 평화의 사상을 공히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6) David P. Gushee, “Glen Harold Stassen: Baptist Peacemaker, Global Christian Ethicist,”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40/2(2013), 101.

7) Gushee and Stassen,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1st ed.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3), xvi.

8) Gushee, “Glen Harold Stassen,” 101.

UN(United Nations)의 설립자 중 한 명인 그의 아버지 헤롤드 스타센(Harold Stassen)의 유산을 간과할 수 없다.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만들기의 실천은 주로 국제적인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을 목표로 한다. 특히 스타센은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은 핵전쟁의 문제를 직면할 때 하나로 수렴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즉 핵전쟁은 정의롭지 않으며 기독교인은 이것을 참여해서는 안된다”⁹⁾는 데이비드 홀렌바흐(David Hollenbach)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그의 국제적 정의로운 평화의 실천을 위한 주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즉,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만들기는 기독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침례교 신학적 바탕과 UN을 통한 국제적 실천으로 나뉘어지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다.

스타센에게 있어서 정의와 평화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성서의 예수이다. 스타센은 정의와 평화의 개념이 성서 윤리의 핵심적 주제로서 그 정점이 예수의 예언자 전통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스타센은 정의를 “예수의 가르침과 전통적 덕의 역사에 있어 핵심 덕목 중 하나이며, 통전적 성품 안에서 기초적 신념 중 하나이며, 성경의 내러티브에 두텁게 내재”¹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에 대립되는 탐욕, 지배, 폭력, 공동체 배제라는 불의에 어떻게 맞서는지 주목한다. 한편, 평화의 관점에서 스타센은 예수의 평화만들기가 어떻게 그 당시의 로마의 불의에 항거하여 폭력적 저항을 주창했던 열심당원들과는 대조되는지를 고찰하면서, 리처드 헤이스(Richard Hays)의 해석, 즉 “권력자들에 대한 신랄할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결코 사회적인, 정치적인 무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았다”¹¹⁾라는 관점에 동의한다. 다시 말해

9) Glen H. Stassen, *Just Peacemaking: Transforming Initiatives for Justice and Peac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90.

10) Stassen and Gushee, *Kingdom Ethics*, 1st ed., 346.

11) Richard B.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San Francisco: HarperOne, 2013), 329.

서, 스타센은 ‘비폭력 직접적 행동(nonviolent direct action)’이라는 개념이 예수의 비폭력주의와 ‘변혁적 주도행위(transformative initiative)’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이라고 주창하였고, 그는 이러한 예수의 비폭력주의가 종교적인 신념일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 영역에서도 실천될 수 있는 본질적 가치라고 믿었다. 이처럼 스타센은 궁극적으로 성서의 예수로부터 정의와 평화의 원천을 이끌어낸다.

스타센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평화만들기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성육신적 제자도(incarnational discipleship)’이다. 이것은 정의로운 평화만들기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이며, 그는 이 제자도를 “현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의 신실성과 미국 사회의 교회가 더 강한 공적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¹²⁾한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칼 바르트(Karl Barth), 앙드레 트로크메(André Trocmé),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클라렌스 조던(Clarence Jordan), 도로시 데이(Dorothy Day), 무리엘 레스터(Muriel Lester)를 성육신적 제자도의 역사적 인물로 소개하면서, 스타센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두터우며 역사적으로 구현된(a thick, historically embodied) 현실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저술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한 규범들을 제공”¹³⁾하였다고 주장한다. 스타센은 성육신적 제자도라는 개념을 통해 신학적 윤리를 정의로운 평화만들기의 주제로 연결시킨다.

한편, 국제적인 정의로운 평화의 실천에 있어서 스타센은 특별히 열

12) David P. Gushee and Reggie L. Williams, “Introduction: Incarnational Discipleship and A Thicker Jesus,” in *Justice and the Way of Jesus: Christian Ethics and the Incarnational Discipleship of Glen Stassen*, eds. David P. Gushee and Reggie L. Williams (Maryknoll: Orbis Books, 2020), 2.

13) Glen H. Stassen, *A Thicker Jesus: Incarnational Discipleship*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16-41.

가지 실천(10 practices)으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와 같다.¹⁴⁾

- 1) 비폭력 직접 행동을 지지하라
- 2) 위협을 감소시키는 독자적 주도행위를 취하라
- 3) 협력적 분쟁 해결을 활용하라
- 4) 분쟁과 불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 5) 민주주의, 인권,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라
- 6)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육성하라
- 7) 국제 관계에서 출현하는 여러 협력적 세력과 동역하라
- 8) 국제 연합 및 국제기구들을 강화하라
- 9) 공격무기와 무기 거래를 감소하라
- 10) (풀뿌리) 민중들의(grassroots) 평화 운동 집단과 자발적 협회들을 격려하라

스타센의 이 10가지 실천은 기본적으로 공적 윤리를 위한 적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실천 항목들은 구조적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는데, 처음 네 가지 실천은 평화의 차원에서(제자도와 평화만들기), 다음 두 가지 실천은 정의의 차원에서(모두를 위한 정의), 그리고 마지막 네 가지 실천은 공동체 회복의 단계로서(사랑과 공동체)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현장에서의 실천 가능한 정의로운 평화의 적용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스타센은 정의의 평화의 실천을 저해하는 권력의 불법성과 힘과 권력에 문제에 관하여 ‘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기독교인이든 세속주의자든 죄가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재해 있다는 깊은 이해가 부족할 때, 그들의 높은 이상은 그들의 이상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을

14) Stassen and Gushee, *Kingdom Ethics*, 1st ed., 151-153.

향한 분노의 증오로 바뀔 수 있다”¹⁵⁾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힘의 사용에 문제에 있어서 죄의 신학적인 함의를 면밀하게 관찰한다. 그러나 그의 10가지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로운 평화는, 기독교 현실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죄’라는 이해가 어떻게 공적인 권력과 현실적으로 연결되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스타센이 국가 간의 협력이나 국제 사회의 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점, 즉 “이러한 실천들이 전쟁을 막는 것에 실패한 사례는 결코 제시하지 않았다”¹⁶⁾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주의자들은 스타센의 윤리를 이상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한다.¹⁷⁾ 그러나 스타센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비판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의 10가지 실천이 “역사의 큰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니버의 사상을 오히려 반영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유투피아적인 희망이 도움이 되지 않기에 매일의(day-by-day)의 현실을 바꾸고 평화를 만드는데 변화된 관계와 구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¹⁸⁾는 점에서 자신의 정의로운 평화 사상이 오히려 니버의 현실주의 영향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의 정의와 평화의 차원이 산상수훈의 성육신적 제자도의 개념

15) Stassen, *A Thicker Jesus*, 123-124.

16) David P. Gushee, “A Critical Realist Engagement with Glen Stassen’s ‘Just Peacemaking’ Approach,” in *Alternative Approaches in Conflict Resolution*, eds. Martin Leiner and Christine Schliesse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93.

17) 예를 들어, 로널드 스톤(Ronald Stone)은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만들기의 기본 철학은 초강대국의 정책들을 안내하고 제한할 정도로 충분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키일 램블렛은(Kyle Lambelet) 이 10가지 실천이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규범적인 설명이 너무 미미해서 복잡한 경험적 사례에 부적절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Ronald H. Stone, “Realist Criticism of Just Peacemaking Theory,”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1 (2003), 256. Kyle B. T. Lambelet, “Just Peacemaking: Practices, Norms, and Ends After Twenty-Five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SCE), Doubletree, Portland, OR, Jan 4-7, 2018), 1.

18)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11-13.

에 근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타센의 사상에 있어서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는 도덕적 실천의 핵심 주체이다. 스타센은 “성품의 통합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충성을 우리 공동체를 형성케 하는 더 큰 드라마의 일부로 여길 때 형성되어진다”¹⁹⁾고 주장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신적 드라마에 참여하는 가장 명백한 도덕적 공동체로 주장한다. 그는 이처럼 “공동체로서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개인주의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²⁰⁾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의 정의로운 평화에서 또 다른 주체는 국제적 단체들이다. 스타센은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하려는 교회 공동체의 노력을 국제적인 협력과 연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기능이 공적 영역의 정의와 평화의 실천을 촉진시킨다고 믿는다. 또한 역사적으로 병원이거나 고아원과 같은 많은 국제적 협력 기관이 유대인과 기독교 공동체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것이 지속적으로 교회 혹은 종교 공동체와 협력하여 왔음²¹⁾을 고찰한다. 즉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 만들기의 실천적 주체는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국제 사회의 다양한 조직에 까지 확장된다.

2. 원라이트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

원라이트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은 궁극적으로, “종교적, 철학적 근거로 정당화되는 일련의 일관된 기준으로서 특정한 군사적 교전의 도덕성을 판별하기 위한”²²⁾ 정당전쟁론의 전통에 기인한다. 이는 “지상의 도시에서

19) Stassen and Gushee, *Kingdom Ethics*, 1st ed., 56.

20)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32.

21)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32.

22) Lisa Sowle Cahill, *Blessed Are the Peacemakers: Pacifism, Just War, and Peacebuilding*

평화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기에, 전쟁은 불가피²³⁾하다고 보는 어거스틴이나 원죄가 있더라도,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는 공동선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할 수 있다²⁴⁾고 주장하면서 힘의 사용을 통한 평온한 질서 (the tranquil order) 유지를 주창하는 아퀴나스와 같은 고전 신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한다. 한편, 20세기 이후로 카톨릭 안에서 평화주의적인 주장들이 또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교황 비오 12세의 대량 살상 무기의 점진적 제거 주장과,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폭력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인정으로 고조되었다. 2016년, ‘팍스 크리스티 인터내셔널(Pax Christi International)’과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the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가 공동 후원하여 모인 카톨릭 활동가와 학자들은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비폭력과 정의로운 평화에 관한 회칙 작성을 호소(appeal)하였다. 그들은 카톨릭의 비폭력주의 역사와 헌신에 대해 논의하면서 「복음의 비폭력 중심성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재수용에 대한 호소(An Appeal to the Catholic Church to Recommit to the Centrality of Gospel Nonviolence)」²⁵⁾라는 문서를 발표하고 더 이상 교회가 정당전쟁론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라이트는 이러한 ‘호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정당전쟁론이 무력 사용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을 갖고 있기에 여전히 평화의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원라이트는 동시에 평화만들기를 배재하는 정당전쟁론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우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9), 8.

23) Augustine, *City of God*, trans. Gerald G. Walsh, S.J. and Daniel J. Honan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8), 19.14.1

24)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thers, 1911-1925), II-II 60.1.

25) Tobias L. Winright, “Why I Shall Continue to Use and Teach Just War Theory,” *Expositions* 12/1 (2018), 142.

어와스에게 영향을 받은 윈라이트는 정당전쟁론자들을 ‘매파’와 ‘비둘기파’로 구분하고 본인을 후자에 위치시키며, 정당전쟁론 안에서의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전쟁 개시 및 전쟁 중의 정의(*jus ad bellum* and *jus in bello*)를 넘어서서 전쟁을 방지하는 정의(*jus ante bellum*) 및 전쟁 이후의 정의(*jus post bellum*)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이것은 다른 전통적인 정당전쟁론자들과 구별되면서 윈라이트를 정의로운 평화의 영역으로 위치시키는 핵심적 근거가 된다.

윈라이트의 정의와 평화의 차원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정당전쟁론의 네 가지 범주(*jus ad/in/post/ante bellum*)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앞의 두 개의 범주가 정의의 개념에 대한 전통적 강조점에 있다면, 뒤의 두 개의 범주는 보다 정의와 함께 평화의 가치를 주목한다. 윈라이트에게 있어서 정의의 함의는, 특히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과 정의로운 치안(just polic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jus ad bellum*의 범주로 연결되는데, 즉 전쟁은 자기 방어, 무고한 사람의 보호, 인권 보호 또는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적 수단으로 수행되어질 때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윈라이트의 “독단적인 평화주의적 신념으로 인해 당신의 이웃 가운데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놔두겠는가?”²⁶⁾ 라는 질문이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그러면서도 윈라이트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같은 파괴적인 수단을 반대하면서, ‘차별(discrimination)의 원칙’을 강조하는 *jus in bello*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윈라이트는 “정당전쟁 전통은 양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jus ante bellum* 및 *jus post bellum* 의 범주는 *jus ad bellum* 및 *jus in bello*

26) Allman Mark J. and Tobias L. Winright, *After the Smoke Clears: The Just War Tradition & Post War Justice* (New York: Orbis Books, 2010), 16.

범주와 통합해야 한다”²⁷⁾ 고 주장하면서 정의와 평화의 교집합을 만들어 낸다. 즉, 윈라이트는 *jus ante bellum*의 논의, 즉 사회적 또는 국가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정의로운 평화만들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jus post bellum*을 주창하면서 그의 ‘정의로운 치안’ 사상이 특히 ‘반응하는 책임(responsibility to react)의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윈라이트는 “전쟁에 관련되고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평화를 확립하려는 목표는 전쟁 이후의 기준과 실천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²⁸⁾고 주장하며 이 *jus post bellum*을 (1) 정당한 원인, (2) 화해, (3) 처벌, (4) 회복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특히 화해, 처벌, 회복 등의 개념에 근거한 그의 서술은 정의로운 평화 및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오랜 기간 경찰 복무의 경험을 가진 윈라이트의 ‘정의로운 치안’ 개념은 그의 정의로운 평화 모델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이다. 이러한 치안 개념을 주창하는 여러 학자 중에서 카톨릭과 재세례파 평화주의의 대화를 시도하는 제럴드 쉘라바흐(Gerald Schlabach)는 “양쪽(평화주의자들과 정당전쟁론자) 모두에게 더 큰 충실성과 일관성을 불러일으키는”²⁹⁾ 방법으로서 ‘정의로운 치안’을 정의로운 평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하였고 윈라이트가 이에 영향을 받았다. 이 개념 안에서 윈라이트는 존 클레이닝(John Kleinig)의 경찰 역할의 네 가지 모델, (1) 범죄와의 전투자(crime-fighter), (2) 긴급 구조대(emergency operator), (3) 사회적 집행자

27) Allman Mark J. and Tobias L. Winright, “Growing Edges of Just War Theory: *Jus Ante Bellum*, *Jus Post Bellum*, and Imperfect Jus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32/2 (2012), 175.

28) Allman and Winright, *After the Smoke Clears*, 56.

29) Gerald W. Schlabach, “Just Policing and the Reevaluation of War in a Less Divided Church,” in *Just Policing, Not War: An Alternative Response to World Violence*, eds. Gerald W. Schlabach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7), 3.

(social enforcer), (4) 사회적 평화유지군(social peacekeeper)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사회적 평화유지 기능이 정의로운 치안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원라이트가 정의로운 치안 개념과 함께 또한 강조하고 있는 정의로운 평화의 구체적 실천 방법은 위에서 소개한 *jus post bellum*이다. 그는 이것의 단계를 정당한 원인(just cause)³⁰⁾, 화해(reconciliation), 처벌(punishment), 회복(restoration)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특히 마지막 세 단계를 그는 회복적 정의의 이론과 유사하게 설명한다. 원라이트는 “회복적 정의가 법률, 전문가 및 국가에 특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건설적인 대응에 대한 상호 책임을 다시 확립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노력”³¹⁾이듯이 *jus post bellum*은 “사람들을 증오에서 온화한 무관심으로, 무관심에서 관용으로, 관용에서 존중으로, 궁극적으로 존중에서 우정으로 전환하기를 열망하는” 화해의 실천을 요구해야 함을 주창하였다.³²⁾ 여기서 처벌이란 화해 및 회복의 단계와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의, 화해, 재건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배상(또는 보상)과 전쟁 범죄 재판이라는 방법으로 구체화된다. 이처럼 원라이트는 화해와 회복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정의와 평화의 상호적 실천을 주창하였고, 이것이 그의 정의로운 평화 사상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된다.

원라이트의 정의로운 평화에 있어서 힘의 사용의 문제는 스타센과 함석헌과 비교하여 가장 명확하게 긍정되어지는 개념이다. 그는 “정의로운 평화만들기의 실천이 실패했을 때(또는 시도할 시간이 없을 때), 즉, 무고

30) Brian Orend, *War and International Justice: A Kantian Perspective*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00), 17.

31) Allman and Winright, *After the Smoke Clears*, 105.

32) 위의 책, 102.

한 이웃의 생명을 적 혹은 이웃의 침략자로부터 방어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힘의 사용은 정당화된다”³³⁾고 주장한다. 그는 무력사용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된 규정 안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원칙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윈라이트에게 있어서 집속탄 폭격(cluster bombing)과 같은 방법은 차별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힘의 사용으로 이해된다.³⁴⁾

윈라이트의 정의로운 치안 개념에서 핵심적인 도덕적 주체는 바로 경찰이다. 그는 경찰관 혹은 경찰 기관이 사회 안에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들은 평화유지(peacekeeping)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사회 안에서 시민들과 협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³⁵⁾고 주장한다. 교회는 종교적인, 신학적인 자원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고, 시민과 경찰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이 정의로운 치안 개념을 국제 사회에도 적용하여 국제적 치안(international policing)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고 그 적용으로 R2P라는 방법을 고찰한다. 윈라이트는 “정의로운 치안 개념은 대량 학살이라는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을 위한 대응 방식으로 이루어진 개념적 도구이며, 이것은 또한 국제 사회 안에서 R2P를 탄생시켰다”³⁶⁾라는 쉘라바흐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역사적 모델로부터 국제적 정의로운 치안 혹은 R2P의 사례들에 주목하였다.

33) 위의 책, 8.

34) Tobias L. Winright, *Serve and Protect: Selected Essays on Just Policing* (Eugene: Cascade Books, 2020), 55.

35) Winright, *Serve and Protect*, 135.

36) Gerald W. Schlabach, “Just Policing,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Anabaptist Two-kingdom Theology,” *The Perspectives Review* 28/3(2010), 73.

3. 함석헌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

함석헌의 정의로운 평화의 이해에 있어서 그가 영향 받은 다양한 동서양의 전통 가운데에서도 특히 노장사상, 퀘이커주의 및 예수와 간디의 평화주의 사상이 보다 부각될 수 있다. 역사상 첫 번째 평화주의자를 노자³⁷⁾로 이해하는 함석헌의 사상에 있어서 노장사상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함석헌은 남한의 군사 독재정권이 강조했던 유교적 ‘충성’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장의 ‘무위’를 강조하고 이 사상의 평화적이며, 해체적이고, 반제도적인 지향성을 근거로 하여, 독재정권의 권력 남용, 폭력, 전쟁, 탐욕에 대하여 치열한 비판을 가한다. 또한 함석헌에게 있어서 중요한 평화적 전통은 그의 퀘이커 신앙이다. 함석헌이 다른 제도화된 기독교 교단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퀘이커주의에 여전히 심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창기 퀘이커들이 비폭력 평화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영국의 민족주의적 박해에 맞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 신념이 다른 어떤 기독교 전통보다 현실 세계의 평화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³⁸⁾ 이러한 함석헌의 비폭력적 평화 사상은 그로 하여금 또한 간디와 예수의 평화주의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우선, 그에게 있어서 간디의 비폭력주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첫째, 간디의 비폭력주의 개념이 정치적 행동에 의해 수반되고 있다는 점, 둘째, 그의 비폭력 저항이 본질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정치적 운동이었다는 점, 셋째, 이러한 운동의 절대적인 힘은 간디뿐만 아니라, 인도의 시민들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간디가 힌두교 신앙에 근거한 비폭력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함석헌이 발견한 정의로운 평화의

37) 함석헌, “노장을 말한다,”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1: 씨알의 소리』 (서울: 한길사, 2016), 391.

38) 김성수, “한국기독교사에서 퀘이커주의와 함석헌의 위치,” 『한국기독교와 역사』 23(2005), 177.

종교적 원천이 바로 예수의 평화주의이다. 그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의 비폭력주의가 수동적 평화주의를 넘어서서 비폭력 ‘저항’을 함의한다고 본다.³⁹⁾

이처럼 함석헌의 정의로운 평화는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과 조우하면서 발전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그의 독특한 ‘씨알’ 철학으로 귀결된다. 즉, 함석헌에게 있어서 정의와 평화의 본질은 씨알이다. 그는 과일의 씨앗을 예로 드는데, 껍질과 알맹이가 벗겨지고 버려질 지라도, 그 씨앗은 타자에게 퍼지며 다른 생명의 원인이 되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요 12:24)처럼 씨알의 평화적 본질은 영원한 비폭력성이다. 김대식은 한편 함석헌의 평화론을 ‘협화주의’로 이해하여, 평화적 실천의 영역을 언어적 평화, 국가적 평화, 종교적 평화, 생태적 평화, 역사적 평화로 구분하기도 하였다.⁴⁰⁾

씨알 사상은 평화의 원천인 동시에 정의의 원천이 된다. 씨알에서 ‘알’이라는 단어가 하늘(○), 자아(·), 움직임(ㄷ)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하여 씨알 안에서 하늘의 대우주와 인간의 소우주가 통합된 주체로 실현 될 때⁴¹⁾ 정의의 이니셔티브가 발생한다고 함석헌은 이해한다. 다시 말해, 그에게 진정한 정의의 실천은 국가와 정치,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씨알의 자기실현이다.⁴²⁾ 이를 현대적 정의의 관점과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역량(capabilities)이라는 개념이다. 함석헌의 정의는 평등(fairness)의 정의, 필요(need)의 정의, 실적(merit)

39) 함석헌, “예수의 비폭력 투쟁”.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1: 씨알의 소리』 (서울: 한길사, 2016), 192-194.

40) 김대식, 『함석헌의 평화론』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23-118.

41) Song-Chong Lee, “Ham Sok Hon, A Pioneer of Korean Cosmopolitanism,” *Religions* 11 (2020), 5.

42) 함석헌, “새 삶의 길,”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2: 들사람 열』 (서울: 한길사, 2016), 570.

의 정의를 넘어서, 역량의 정의와 연결된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각 주체들의 역량실현을 정의의 관점에서 다룬 것처럼⁴³⁾, 씨알 주체성의 자기실현은 곧 정의의 동인이 된다. 또한 씨알은 우주적 존재로서 독립적이면서(independent) 상호의존적인(interdependent)이다. 따라서 씨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생적 연대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때 씨알은 본질적으로 자아와 타자가 통합되는 공동체적 주체이다.

함석헌의 정의로운 평화가 씨알의 자기 주체성 실현으로 이해되어질 때 이는 씨알의 교육(pedagogy)이라는 방법으로 이어진다. 함석헌이 해방 이후 대학이나 제도화된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중 강연과 성경 공부, 「씨알의 소리」와 잡지와 같은 민중 교육 활동에 주력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씨알을 주체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bottom-up) 정의와 평화의 실천이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함석헌은 또한 ‘함께 살기 운동’을 통해 공동체 조직화(community organization)의 차원을 강조하였다. 이 공동체는 생태주의적 공동체인데, 노장사상에 영향을 받은 함석헌의 씨알 사상 안에서 생명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즉,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각 씨알은 연대를 통해 그들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⁴⁴⁾ 특히 그의 ‘씨알 농장’은 함석헌의 생태적 정의로운 평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사적 모델로 나타났다. 생태적이고, 사회-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차원을 통합하려는 함석헌의 공동체 조직화의 실천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생명, 정의 및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운동(civil rights movements)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는 반전 운동으로, 독재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 또한 남

43) Martha C.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18.

44) 함석헌, “들사람 열,”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2: 들사람 열』 (서울: 한길사, 2016), 488-489.

북한 평화 운동으로 다양한 정의와 평화의 의제를 이끌며 함석헌은 20세기 남한의 인권 및 시민사회 운동을 이끌었다.

한편 함석헌은 (스타센와 원라이트와 달리) 가장 명백하게 국가적인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권력의 남용과 착취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제국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주의이다. 함석헌은 제국주의적 인간사상이 물질중심의 세계관으로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즉, 정신과 신비적인 것을 모두 무시하고 물질적 힘의 철학만을 신뢰하면서 이것이 종교와 도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 군국주의, 식민주의, 생존주의, 전쟁, 산업화, 침략, 그리고 제1,2차 세계대전이다. 함석헌에게 있어서 제국주의는 단순히 국가 간의 억압을 넘어 정치,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요소로 전개되면서, 이러한 제국주의가 물질 제국주의⁴⁵⁾, 종교 제국주의⁴⁶⁾, 교육 제국주의⁴⁷⁾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비슷한 관점에서 함석헌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 권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에겐 풀뿌리 씨알이야말로 국가의 주인이고 주체인데, 국가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질 때 국가는 사랑과 정의의 영원한 생명을 담은 진정한 주체인 씨알의 위치를 빼앗는다.⁴⁸⁾

함석헌의 정의로운 평화의 핵심적 공헌은 도덕적 주체(moral agency)에 관한 그의 강조에 있다. 즉, 함석헌에게 있어서 도덕적 주체는 풀뿌리이며, 씨알이며, 시민이다. 씨알의 본성 안에 국가의 부당한 권력과 힘에

45) 위의 책, 488-489.

46) 함석헌, “새 윤리,”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3: 인간혁명』 (서울: 한길사, 2016), 148.

47) 함석헌, “새 교육,”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3: 인간혁명』 (서울: 한길사, 2016), 430.

48) 박재순, “동아시아와 함석헌의 평화사상,” 『일본사상』 16(2009), 46.

맞설 정의의 차원이,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 및 자연과 조화를 추구할 평화의 차원이 통전적으로 내재해 있다. 함석헌에게 있어서 세계를 변혁시킬 혁명은 폭력을 사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공동체에 있으며, 정의로운 평화는 이 조직화된 공동체에 의해 구현된 비폭력적 저항에 의해 가능하다. 이 때, 함석헌은 국가의 장벽을 초월한 연대의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그의 정의로운 평화의 이해는 본질적으로 세계가 하나의 나라⁴⁹⁾라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정의로운 평화의 실천으로 나아간다.

4. 세 학자의 비교 연구

지금까지 본고는 세 명의 동서양의 학자들의 사상의 여러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종합하기 위해서, 학자 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타센과 원라이트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타센은 10가지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 중심(practice-based)의 접근을 시도하는 반면 원라이트는 정당전쟁론의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⁰⁾ 즉, 스타센은 산상수훈에 근거한 예수의 윤리를 중심으로 전쟁 이전에 평화를 조성하는(peace-making) 사전적 윤리(proactive ethics)에 더 주목하고 있는 반면, 원라이트는 정당전쟁론의 범주 안에서 특히 *jus post bellum*의 단계와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이처럼 스타센과 원라이트는 그들의 신학적, 전통적 이해의 차이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천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두 학자 모두 (그것이 실천 중심적이든 원칙 중심적이든) 하향

49) 함석헌, “역사 속의 민족관,”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2: 들사람 열』 (서울: 한길사, 2016), 658-59.

50) 반면, 함석헌의 실천 방법은 주체자 중심(agent-based)의 접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식(top-down) 구조를 지향하면서 문화적으로 혹은 토착적으로 뿌리내리는 정의로운 평화의 도덕적 주체의 문제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기울이는데 실패한다. 예를 들어,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의 10가지 실천의 일부 과제들, 특히 ‘민주주의, 인권,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라’와 같은 항목은 한반도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북한 같은 국가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원라이트의 정의로운 치안 개념 역시 경찰권 자체가 전혀 다른 (혹은 부정적) 이해를 가진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⁵¹⁾ 이 점에서 함석헌의 씨알 중심의 정의로운 평화는 실천 혹은 원칙 중심적 방법이 간과하고 있는 토착적 혹은 상황화적 전통 안에서 도덕적 주체성(moral agency)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 정의와 평화의 차원을 행위자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정의와 평화의 역량을 실현시키려 하는 상향식 접근은 기존의 하향식 방식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한반도 상황에서의 정의로운 평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될 수 있다.

스타센과 함석헌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은 그들의 지역적, 시대적, 철학적 전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침례교 신학(혹은 재세례파적 이해)과 웨이커라는 기독교 평화주의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특히 예수의 산상수훈과 비폭력주의를 주목한다는 결정적인 공통점을 가진다. 함석헌의 정의로운 평화 사상은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장사상과 같은 동양적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함석헌은 스타센보다 국가, 국가주의,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분명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스타센의 방법은 UN과 국제 사회 중심의, 보다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인 세계시민주의(legal and political cosmopolitanism) 전통으로 여겨지는 반면, 함석헌은 풀뿌리 시민 사회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그리고 시민적 세계시민주의(cultural and civic cosmopolitanism)에 더 큰 관심

51) 이러한 사례가 실천중심 혹은 원칙중심의 정의로운 평화의 한계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⁵²⁾

또한, 스타센과 함석헌의 생태적인 관심에 대한 차이는 오늘날의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있어 결정적으로 부각된다. 스타센은 그의 10가지 실천 안에서 기후 문제에 대한 명백한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 반면, 함석헌의 씨알 사상은 본질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 철학적 개념이다. 함석헌은 이것을 철학적 사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씨알 농장’이라는 역사적인 모델로 실천함으로써, 생태적 정의로운 평화를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러한 생태적 접근은 한국적 (혹은 다른 지역적) 정의로운 평화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시의적절한 가치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한편, 원라이트와 함석헌의 사상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힘과 권력에 대한 이해이다. 원라이트는 정당전쟁론에 근거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힘의 사용을 긍정하였지만 함석헌은 비폭력주의에 기인하여 어떤 종류이든지 힘의 사용, 특히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의 문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원라이트의 정의 개념에서 힘의 사용은 치안 유지를 핵심적 의제로 하여 부당한 폭력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함석헌에게 있어서 정의는 경찰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 및 제도적 권력 및 힘의 사용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

52) 제라드 델란티(Gerard Delanty)는 세계시민주의를 네 가지 구체적 범주로 구분한다. 첫째, 법적(legal) 세계시민주의는 국제법과 국제법에 의해 강제되는 긍정적 국가적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정치적(political) 세계시민주의는 글로벌 거버넌스 형태의 창출이나 국제 정치 제도의 개혁을 강조한다. 셋째, 문화적(cultural) 세계시민주의는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의무를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상호연결성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적(civic) 세계시민주의는 문화적, 법적, 정치적 세계주의와 관련되어 있지만 세계시민권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더욱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구분은 세계시민주의를 단일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Gerard Delanty, *Citizenship in a Global Age: Society, Culture, Politics*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2000), 53.

며, 궁극적으로 풀뿌리 시민, 즉 씨알들의 자기실현 및 연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함석헌을 향한 비판은 그가 힘과 권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의 사상이 현실 세계에서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원라이트는 힘의 문제를 긍정하는 대신에 그것의 제한적인 사용의 문제(예: 무기 사용의 문제, 차별의 원칙 등)를 강조하면서 보다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부각시킨다. 이는 국제 사회 및 현실 정치의 요소를 간과할 수 없는 한반도 상황에서의 정의로운 평화 적용에 있어 함석헌의 사상들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원라이트의 중요한 공헌은 그가 함석헌이 (그리고 스타센이) 간과하는 전쟁 및 갈등 이후의 정의, 즉, *jus post bellum*의 함의들에 집중하면서 한 사회의 회복적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시민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6.25 전쟁과 남북 분단, 그 후 군사독재 정권의 반민주주의적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공동체적 치유와 사회적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평화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때, 원라이트가 주목하는 전쟁 이후의 윤리 문제나 회복적 정의의 구체적 과제들은 한반도 상황의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 방법으로 요청될 수 있다.⁵³⁾

5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남한의 정부 주도로 발족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것의 원형이 되는 남아공의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대니얼 필팟(Daniel Philpott)은 종교적 다양성의 맥락에서 정치적 화해의 단계로서 구체적인 (1)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정부기관 구축(building socially just government institutions), (2) 시인/진실말하기(acknowledgment), (3) 배상(reparation), (4) 처벌(punishment), (5) 사죄(apology), (6) 용서(forgiveness) 등의 방법을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고찰한다. 이러한 단계들이 한반도의 근대사에 부재하였던 회복적 정의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Daniel Philpott, *Just and Unjust Peace: An Ethic of Political Reconcili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71-285.

III. 한반도 상황에서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의 모색: 5개의 가치를 중심으로

본고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각 전통에서 정의로운 평화 이론을 상징할 수 있는 세 학자의 사상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이 학자들의 각각의 이론은 그 자체로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함의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타센이 다루는 10가지 실천 안에서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한 핵전쟁 방지에 주장에 대한 신학적 관점은 북한의 핵무장 및 비핵화의 주제로 연결되어지며, 원라이트의 회복적 정의와 '화해, 배상 및 회복'의 원칙들은 남북문제 혹은 한일문제의 과거사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통일을 낳은 이데올로기 및 국가주의 시대의 청산으로 보는 함석헌의 비폭력 평화 사상은 한반도 문제를 세계사적인 전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로 작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본고의 목적은 각 학자들의 사상을 한반도 맥락에 직접적으로 각각 연결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정의로운 평화의 통전적 패러다임으로 이를 재구성하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통시적인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재구성된 이론의 토대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요 가치(values)를 제안한다: (1) 토착적 가치, (2) 풀뿌리적 가치, (3) 생태적 가치, (4) 세계시민주의적 가치, (5) 회복적 가치.

다시 말해서, 한국적 상황에서 재구성된 정의로운 평화는 토착적 전통 안에서 풀뿌리 중심의 도덕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상향적(bottom-up) 과정 안에서, 타자 및 자연 세계의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의 내러티브를 공유하면서 세계시민주의적 연대를 지향하는, 정의와 평화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모색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함석헌의 정의와

평화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스타센과 윈라이트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이 한반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성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함석헌의 사상은 이 5가지의 정의로운 평화의 가치를 보다 통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⁵⁴⁾ 그리하여 세 학자의 통합적 비교 연구를 통하여, 본고는 *세계시민 풀뿌리들이 주체성을 일깨워 자연 및 인간 세계의 모든 생명 역량을 실현시킬 정의와, 비폭력 안에 적극적 평화를 통하여 제국주의, 민족주의, 인간중심주의로 상징되는 배타적 폭력에 맞서 함께 연대하여 상생의 세계를 회복하려는 평화구축의 총체적 과정*을, 한반도 상황에서의 정의로운 평화의 방법론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 토대로 제안되고 있는 5가지의 가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착적 가치

토착화는 지역적 전통, 관습, 경험이 서양과는 다른 상황에서의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토착적 공동체는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실천을 수용하는 정의와 평화의 사회적 적용을 가능케 하며,⁵⁵⁾ 비서구권 사회는 정의와 평화를 구축하려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토착화를 다양하게 시도해 왔다. 마찬가지로

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라이트나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 역시 함석헌의 약점을 보완한다. 예를 들어, 스타센의 UN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평화만들기의 구상은 한반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정학적 관점을 제공하며, 윈라이트의 힘과 권력의 사용에 대한 이해 혹은 회복적 정의의 실천들도 한반도의 정의로운 평화의 필수적인 방법들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함석헌의 사상에서 크게 부각되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함석헌의 사상을 보완하는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55) Roger Mac Ginty, "Traditional and Indigenous Approaches to Peacemaking," in *Contemporary Peacemaking: Conflict, Violence, and Peace Processes*, eds. John Darby and Roger Mac Ginty, 2nd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120.

한반도의 상황에서의 정의로운 평화는 정의와 평화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으로부터 그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세 학자를 비교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서구의 역사적 전통이 스타센과 윈라이트의 정의로운 평화 사상에 깊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들의 실천 방법은 서구적 전통과 배경에 의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한국 사회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전쟁의 경험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민주주의 전통 등 서구와는 다른 역사적 궤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성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상황화 혹은 토착화의 과정이 요청되어진다.

이러한 정의로운 평화의 토착적 적용은 크게 세 가지의 함의를 가진다. 첫째, 토착적 가치는 한국과 동양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동양과 서양의 사상의 대화 속에서 그것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토착적 가치는 정의로운 평화의 실천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top-down)가 아닌 아래로부터 위의(bottom-up) 상향적 방향성을 가진다. 로저 맥 긴티(Roger Mac Ginty)에 따르면, 위로부터의 아래의 하향적 평화 구축 모델은 '신뢰, 화해, 상호 그룹간의 인식' 과 같은 갈등의 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것에 약하고, 평화의 산물들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기 어려우며, 평화유지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⁵⁶⁾ 셋째, 정의로운 평화의 토착적 모델은 그리하여 규범적인 것이 아닌, 더욱 개방적인 방법을 지향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타센의 실천 중심적 윤리나 윈라이트의 원칙 중심적 윤리보다 함석헌의 씨알 중심의 윤리가 보다 토착적 적용에 있어 긴밀하게 연결된다.

56) 위의 책, 120.

2. 풀뿌리적 가치

한반도 상황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토착화와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핵심적 가치는 풀뿌리이다. 정의로운 평화의 토착적 적용이 상향식 방법을 지향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풀뿌리적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존 폴 레더락(John Paul Lederach)은 풀뿌리(민초)들을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정부의 지역 지도자와 그 반대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알고”⁵⁷⁾ 있기 때문에 사회의 기반을 상징하는 핵심적 평화 실천의 그룹으로 이해한다. 풀뿌리라는 개념은 함석헌 뿐만 아니라 사실 스타센에게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스타센은 10가지 실천의 마지막 항목에서 ‘풀뿌리(민중)들의 평화 운동 집단과 자발적 협회들을 격려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풀뿌리의 개념은 정의와 평화의 주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격려의 대상이자 객체로 나타난다. 반면에 함석헌은 이러한 풀뿌리적 민중들이 정의와 평화를 본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자들이다.

정의로운 평화의 풀뿌리적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풀뿌리적 정의로운 평화의 적용은 함석헌의 씨알 사상에서도 발견되듯이 정의로운 평화 모색에 있어 개개인의 주체성(agency)을 강조한다. 둘째, 풀뿌리적 가치는 상향식 사회 운동을 구축하는 시민들의 자결권을 강조한다. 이는 시민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국가주도의 하향식 방법에 비교하여 반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풀뿌리적 가치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영역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정의와 평화의 실천으로 초대한다. 한반도에서 통일과 화해의 문법이 제도나 영

57) John Paul Lederach,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8), 43.

토의 통일이라는 범주에서 사람의 통일로 확장되고 있듯이, 풀뿌리적 주체성은 지속가능한 정의와 평화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생태적 가치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윤리적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기후이상의 징후들은 더욱 빈번하고 더욱 파괴적인 자연재해를 야기하는 동시에 세계 식량 위기, 이민 및 난민 위기 등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현대 서구 문명의 특징인 인간중심주의, 개인소비문화, 가부장제를 생태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한다.⁵⁸⁾ 반면에 한국 및 동양의 (종교적) 전통은 생태적 정의로운 평화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확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유교, 노장, 불교, 신토 등은 공히 자연과의 조화 안에서의 인간의 필요 및 자연과의 상호 관련성에 관련한 중요한 통찰들을 가지고 있다”⁵⁹⁾는 것이다.

스타센이 주도한 정의로운 평화만들기의 패러다임 안에서 생태주의는 그의 핵심적이며 시대적인 주제는 아니었다. 스타센의 (그리고 원라이트의) 정의로운 평화 사상은 그리하여 생태적 정의와 평화의 개념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함석헌의 씨알 사상은, 씨알의 어원의 자체적 함의처럼, 그 내재적인 본성 안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며 생태적 정의와 평화를 지향한다. 또한 함석헌은 ‘씨알 농장’이라는

58) Mark Hathaway and Leonardo Boff, *The Tao of Liberation* (Maryknoll: Orbis Books, 2009), 77.

59) Mary Evelyn Tucker, “Confucianism and Deep Ecology,” in *Deep Ecology and World* eds. David Landis Barnhill and Roger S. Gottlieb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127.

역사적 모델 안에서 생태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동양적 사상은 그 종교, 문화, 철학적 전통 속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적 상황에서의 정의로운 평화의 실천은 서구 문화 및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생태 공동체의 실천 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점철되어질 수 있다.

4. 세계시민주의적 가치

토착적 혹은 상향식의 풀뿌리적 가치를 정의로운 평화의 핵심적인 틀로 이해할 때, 이는 자연스럽게 세계시민주의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함석헌은 씨알이 하나의 세계를 향해 전 세계의 씨알들과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때 그의 정의로운 평화는 우주적인 상호의존성, 즉 본질적으로 세계시민주의적인 속성을 지닌다.

세계시민주의는 원래 시민권 상태나 다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처음으로 이를 역설한 칸트는 영구적 평화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에, 연방주어나 자유국가에 기반을 둔 세계 시민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국제법의 입법 등을 촉구하였다.⁶⁰⁾ 그러나 이러한 칸트식 세계시민주의는 제국주의적인 서구화 프로젝트의 기획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예를 들어 아피아(Kwame Anthony Appia)는 이에 반하여 문화적 세계시민주의를 강조하면서, 보다 주체성을 강조한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rooted cosmopolitanism)”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⁶¹⁾ 유사한 방식에서

60) Martha C. Nussbaum, “Kant and Cosmopolitanism,” in *Perpetual Peace: Essays on Kant’s Cosmopolitan Ideal*, eds. James Bohman and Matthias Lutz-Bachmann (Cambridge: MIT Press, 1997), 28.

61) Anthony Appiah, *The Ethics of Ident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함석헌의 세계시민주의적인 구상은 스토아학파나 칸트주의의 인간 이성
에 기반한 지구적 연방주의를 추구하기보다, 민족주의의 폭력을 자각하
는 씨알들의 연대를 주창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의 세계시민주의적 가
치는 한반도 상황에서 정의로운 평화 적용에 있어서 실천적 통찰을 제공
한다.

물론, 국제적인 영역(realm)에서 정의와 평화의 실천의 방법은 세 학자
의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스타센과 윈라이트가 국제적
인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함석헌은 보다 분명하게
전 세계적 씨알의 세계시민주의적 연대를 옹호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지정학적 상황과 한반도 상황에서의 국가 주도 혹은 국제 사회 주도
정의로운 평화의 실천이 가지는 한계를 고려할 때⁶²⁾, 풀뿌리 세계시민주
의적 접근은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적 전망으로서의 국제
적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

5. 회복적 가치

한반도 상황에서 정의로운 평화의 마지막 핵심 가치는 회복적 관점이
다. 이는 회복적 정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회복적 정의의 목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범죄 및 그에 관련된 형태의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대응하
는 방식을 바꾸는 것”⁶³⁾이다. 이러한 회복적 패러다임 안에서 진실 말하
기(truth-telling), 사과, 배상, 용서, 화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와

2007), 214.

62) 예를 들어, 2차 북미정상회담(2019)의 실패는 비핵화 및 한반도의 화해를 위한 정세를
일시에 냉각시켰다.

63) Gerry Johnstone and Daniel Van Ness, “The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in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eds. Gerry Johnstone and Daniel Van Ness
(Portland: Willan Publishing, 2006), 5.

가해자가 함께 회복의 과정을 실천적 방법이 모색된다. 예를 들어 대니얼 필팟(Daniel Philpott)이 정의를 “단순히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불의가 사람과 관계에 끼친 광범위한 상처를 바로잡는 것”⁶⁴⁾임을 역설한 것처럼, 회복적 정의와 정의로운 평화의 회복적 가치는 공히 정의와 화해 및 평화가 내재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함석헌과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에 있어서 이러한 회복적인 가치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원라이트는 *jus post bellum*이라는 전쟁 이후의 정의의 방법 안에서 정의와 평화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회복적 가치는 비극적인 현대사를 관통한 한반도의 시민들이 사회적, 공동체적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풀뿌리적 가치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누가 불의와 폭력에 피해자이며, 누가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진정한 주체자인가? 하향식 방법의 정의로운 평화의 실천은 이러한 주체자가 국가 및 정부가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인 반면, 풀뿌리적 정의로운 평화로의 전환은 시민들이 직접 정의와 평화의 주체자로 나선다.

IV. 나가는 말: 한국적(혹은 전지구적) 정의로운 평화의 실천을 향하여

본고는 지금까지 세 학자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을 비교하면서 핵심적인 5개의 가치—토착적, 풀뿌리적, 생태적, 세계시민주의적, 회복적—가 한반도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정의로운 평화 이론의 핵심적인 담론으로 다

64) Philpott, *Just and Unjust Peace*, 55.

루어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치들은 별도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상황에서 이러한 5가지의 가치가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은 아니며 한반도의 정의로운 평화의 역사 속에서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어 왔다. 예를 들면, 토착적 가치의 실천 사례는 남북한 정부 주도 하에 양국의 언어적 통합 및 토착적 언어의 새 발굴을 위한 ‘겨레말큰사전’이라는 국어대사전의 집필 노력으로 살펴볼 수 있다. 풀뿌리적 가치의 관점에서서는 남한의 시민단체 혹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사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NGO들의 사업은 평화조성의 관점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와 남북관계 완충만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재고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⁶⁵⁾ NGO들은 한반도 정의와 평화의 실천을 위한 상향식 실천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생태적 가치에 관해서는 비무장지대(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생태계가 보존되고 있는 DMZ는 유례없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기에 그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비극적인 군사적 분단의 상징을 생태적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장소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세계시민주의적 가치의 실천에 있어서는 국제 종교 시민단체 및 NGO 단체들의 한반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다각적인 협력의 노력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10차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열리면서 세계

65) 김성한, 문경연,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대북 지원 NGO와 북한 인권 NGO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36(2014), 154.

기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한반도 정의와 평화의 담론으로 이끌었으며,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Woman Making Peace’는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의 주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세계시민적 연대를 이끌었다.⁶⁶⁾ 회복적 가치의 관점에서 남북 정부 및 적십자, 민간 사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던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예로 들 수 있다. 서로의 이야기를 알고 나누는 순간 트라우마는 과거의 것이 된다는 말처럼,⁶⁷⁾ 양국 이산가족들의 재회와 만남은 기쁨, 슬픔, 용서와 화해, 치유의 회복적 과정 속에서 정서적으로 그들을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 제안된 5개의 가치는 한반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역사적 사례에서 이미 일정 부분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이 방법들(토착적, 풀뿌리적, 생태적, 세계시민주의적, 회복적)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질 때⁶⁸⁾, 이 방법론은 보다 적실한 한반도의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이 단순히 한국적 상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맞서 오늘날 환경 정의와 생태적 평화는 전지구적 담론이 되었으며,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력이 가속화되면서도 지역화(localization)의 함의들은 보다 강조되고 있다. 종교적 근

66) JeongAe Ahn-Kim, “Women Making Peace in Korea: The DMZ Ecofeminist Farm Project,” *Social Justice* 46/1(2019), 79.

67) Martha Minow,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Boston: Beacon Press, 1999), 67.

68)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5가지의 가치들이 다른 (때로는 상충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가치들과 관점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풀뿌리 가치의 상향식 접근과 대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의 실효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는 때로는 매우 불안하거나 유동적인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내외부적 정치 역학 관계에 따라 언제나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 때 풀뿌리적 가치는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혹은 대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본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등장하고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향식 질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상향식 정의로운 평화의 구현은 불의와 폭력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세계 시민들을 위한 공동의 의제가 되고 있다. 즉, 현대의 인류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윤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정의로운 평화의 실천은 세계의 다양한 도덕적 주체들의 연대를 또한 요청한다. 따라서 이 5개의 가치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재구성된 정의로운 평화 이론이 통합적 모델로서 한반도를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혹은 다른 지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또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대식. 『함석헌의 평화론』.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 김성수. “한국기독교사에서 케이커주의와 함석헌의 위치.” 『한국기독교와 역사』 23(2005), 163-194.
- 박재순. “동아시아와 함석헌의 평화사상.” 『일본사상』 16(2009), 21-53.
- 함석헌. “노장을 말한다.”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1: 씨알의 소리』. 서울: 한길사, 2016, 383-396.
- _____. “들사람 열.”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2: 들사람 열』. 서울: 한길사, 2016) 471-495.
- _____. 새 교육.”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3: 인간혁명』. 서울: 한길사, 2016), 443-477.
- _____. “새 삶의 길.”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2: 들사람 열』. 서울: 한길사, 2016), 561-601.
- _____. “새 윤리.”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3: 인간혁명』. 서울: 한길사, 2016), 103-149.
- _____. “역사 속의 민족관.”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2: 들사람 열』. 서울: 한길사, 2016, 639-660.
- _____. “예수의 비폭력 투쟁.” 함석헌선집편집위원회 편저, 『함석헌선집 1: 씨알의 소리』. 서울: 한길사, 2016, 192-203.
- Ahn-Kim, JeongAe. “Women Making Peace in Korea: The DMZ Ecofeminist Farm Project.” *Social Justice* 46/1 (2019), 79-90.
- Allman Mark J. and Tobias L. Winright, *After the Smoke Clears: The Just War Tradition & Post War Justice*, New York: Orbis Books, 2010.
- _____. “Growing Edges of Just War Theory: *Jus Ante Bellum, Jus Post Bellum*, and Imperfect Jus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32/2(2012), 173-191.
- Appiah, Anthony. *The Ethics of Ident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thers, 1911-1925.

Augustine. *City of God*. Trans by Gerald G. Walsh, S. J. and Daniel J. Honan.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8.

Biggar, Nigel. *In Defence of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Cahill, Lisa Sowle. *Blessed Are the Peacemakers: Pacifism, Just War, and Peacebuild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9.

Delanty, Gerard. *Citizenship in a Global Age: Society, Culture, Politics*.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2000.

Gushee, David P. "A Critical Realist Engagement with Glen Stassen's 'Just Peacemaking' Approach," in *Alternative Approaches in Conflict Resolution*, edited by Martin Leiner and Christine Schliesse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91-101.

_____. "Glen Harold Stassen: Baptist Peacemaker, Global Christian Ethicist."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40/2(2013), 101-105.

Hays, Richard B.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San Francisco: HarperOne, 2013.

Hathaway, Mark and Leonardo Boff. *The Tao of Liberation*. Maryknoll: Orbis Books, 2009.

Johnstone, Gerry and Daniel Van Ness. "The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In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edited by Gerry Johnstone and Daniel Van Ness. Portland: Willan Publishing, 2006, 5-23.

Lambelet, Kyle B. T. "Just Peacemaking: Practices, Norms, and Ends After Twenty-Five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SCE), Doubletree, Portland, OR, Jan 4-7, 2018.

Lederach, John Paul.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8.

Lee, Song-Chong "Ham Sok Hon, A Pioneer of Korean Cosmopolitanism." *Religions* 11(2020): 5.

Mac Ginty, Roger. "Traditional and Indigenous Approaches to Peacemaking." in *Contemporary Peacemaking: Conflict, Violence, and Peace Processes*,

- edited by John Darby and Roger Mac Gin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120-130.
- Minow, Martha.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Boston: Beacon Press, 1999.
- Nussbaum, Martha C.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 _____. "Kant and Cosmopolitanism," in *Perpetual Peace: Essays on Kant's Cosmopolitan Ideal*, edited by James Bohman and Matthias Lutz-Bachmann. Cambridge: MIT Press, 1997, 25-58.
- Orend, Brian. *War and International Justice: A Kantian Perspective*.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00.
- Philpott, Daniel. *Just and Unjust Peace: An Ethic of Political Reconcili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Schlabach, Gerald W. "Just Policing,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Anabaptist Two-kingdom Theology." *The Conrad Grebel Review* 28/3(2010), 73-88.
- Stassen, Glen H.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Cleveland: The Pilgrim Press, 2008.
- _____. *Just Peacemaking: Transforming Initiatives for Justice and Peac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_____. *A Thicker Jesus: Incarnational Discipleship*.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 _____. and David P. Gushee,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1st ed.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3.
- Stone, Ronald H. "Realist Criticism of Just Peacemaking Theory."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1(2003), 255-267.
- Tucker, Mary Evelyn. "Confucianism and Deep Ecology." in *Deep Ecology and World Religions*, edited by David Landis Barnhill and Roger S. Gottlieb.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127-152.
- Winright, Tobias L. *Serve and Protect: Selected Essays on Just Policing*. Eugene: Cascade Books, 2020.
- _____. "Why I Shall Continue to Use and Teach Just War Theory." *Expositions* 12/1(2018), 142-161.

논문투고일: 2023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3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2일

• 국 문 초 록 •

글렌 스타센과 다른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약 30년 전에 정의로운 평화만들기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는데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종교적, 문화적, 철학적 전통에 의존하는 비서구 사회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의로운 평화만들기는 역사적, 상황적, 이론적(그리고 신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고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정의로운 평화만들기의 재구성된 모델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글렌 스타센, 토바이어스 원라이트, 함석헌 세 학자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을 비교 분석한 후, 한반도 상황에 실천하기 위한 정의로운 평화의 가치로서 5가지의 핵심 가치—토착적, 풀뿌리적, 생태적, 세계시민주의적, 회복적—를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재구성된 정의로운 평화만들기는 세계시민주의적 풀뿌리 주체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일깨우며 타자와의 조화와 공생 속에서 깨어진 관계로부터 공동체들을 회복시키는 통전적인 접근을 요청하도록 한다.

주제어: 정의로운 평화, 글렌 스타센, 토바이어스 원라이트, 함석헌, 한반도
